



유럽, 캡티브 보험회사 동향

김가현 연구원

요약

캡티브(Captive)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험회사로, 주로 유리한 조세 환경을 갖추고 있는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과 같은 특정 지역에 설립되어 있음. 최근 자연재해 등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캡티브 보험회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 각국 정부는 자국 내에 캡티브 보험회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안을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캡티브 보험회사는 자회사 또는 관련 법인에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험회사로, 보다 맞춤형 보험 설계가 가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¹⁾
 - 캡티브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위험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맞춤형 보험을 설계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시중 보험은 계약 제외 사항이 많고 보장 한도가 제한적이어서 기업의 니즈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²⁾
 - 일반 보험회사를 활용할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감소함
 -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관련 청구가 없는 경우, 당해 연도 보험료는 자회사의 이익으로 남게 된다는 장점이 있음
- 유럽의 캡티브 보험회사는 주로 규제가 적고 유리한 조세 환경을 갖추고 있는 버뮤다, 케이맨 제도, 건지(Guernsey), 룩셈부르크 등과 같은 특정 지역에 설립되어 있음
 - 캡티브 보험회사가 설립 되어있는 관할권은 역외금융센터(OFC)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으며 법인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음³⁾
 - 유럽 지역 중 가장 많은 캡티브 보험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곳은 버뮤다이며, 그 뒤로는 케이맨 제도, 건지, 룩셈부르크 등 여러 곳이 존재함⁴⁾
 - 버뮤다와 케이맨 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지역권으로, 2022년 기준 각각 660개, 650개의 캡티브 보험회사가 설립되어 있음
 - 그 외 유럽 내 지역에 설립된 캡티브 보험회사의 수를 살펴보면 건지는 201개, 룩셈부르크는 195개로 나타남

1) Investopedia(2024. 1), "Is Captive Insurance a Legitimate Tax Shelter?"

2) AM BEST(2023), "Captive Insurer Number Set to Grow in Europe as More Jurisdictions Seek to Lure Companies"

3) IMF(2000), "Offshore Financial Centers:IMF Background Paper"

4) Statista(2023. 3), "Leading domiciles of global captive insurance companies from 2019 to 2022, by number of companies"

- 관할권의 장점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은 자국보다는 특정 지역에 캡티브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 2023년 기준 프랑스 회사가 소유한 캡티브 보험회사는 120개이지만 이중 자국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는 9개에 불과함⁵⁾

○ 최근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등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캡티브 보험회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2022년 기준 자연재해 건수는 2000년 대비 약 80건 증가한 총 421건의 자연재해가 나타났으며, 이는 3,3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남⁶⁾
 - 같은 해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약 31,000명이었으며,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15,000명 이상이 사망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
- 특히 유럽 내 사이버 공격 빈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말 약 130건에서 2023년 6월 6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함⁷⁾
- 하지만 기업 리스크관리자의 70% 이상은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대안 중 하나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캡티브 보험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⁸⁾
 -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내 캡티브 보험회사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2018년 15%에서 2022년 47%로 증가했으며, 12%는 향후 2년 내 새로운 캡티브 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답함

○ 이에 각국 정부는 자국 내에 캡티브 보험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법안 도입 등의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프랑스는 자국 내 캡티브 보험회사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여 자국 내 캡티브 보험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프랑스 기업의 리스크 보장을 개선하고자 함⁹⁾
- 영국 정부는 2023년 가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캡티브 보험회사의 자국 내 설립과 성장을 위해 2024년 봄부터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¹⁰⁾
- 이탈리아, 스페인의 리스크관리 협회는 보험 규제 당국에 캡티브 보험회사 인가 및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음¹¹⁾
- 자국 내 캡티브 보험회사 유치를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자국으로 이전하고 국내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자회사 또한 캡티브 보험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¹²⁾

5) Gide Loyrette Nouel(2023. 6), "A captivating reform? Making captive reinsurance more attractive in France"

6) Statista(2023), "Number of natural disaster events worldwide from 2000 to 2022"

7) ENISA(2023), "ENISA Threat Landscape 2023"

8) FERMA(2022), "FERMA European Risk Manager Survey Report 2022"

9) Gide Loyrette Nouel(2023. 6), "A captivating reform? Making captive reinsurance more attractive in France"

10) GOV.UK(2023. 11), "Autumn Statement 2023"

11) AXA XL(2023. 12. 7), "The role of a carrier as a partner in the captive"

12) CIC Services(2023), "Onshore Domiciles: A Growing Trend in Captive Insurance"